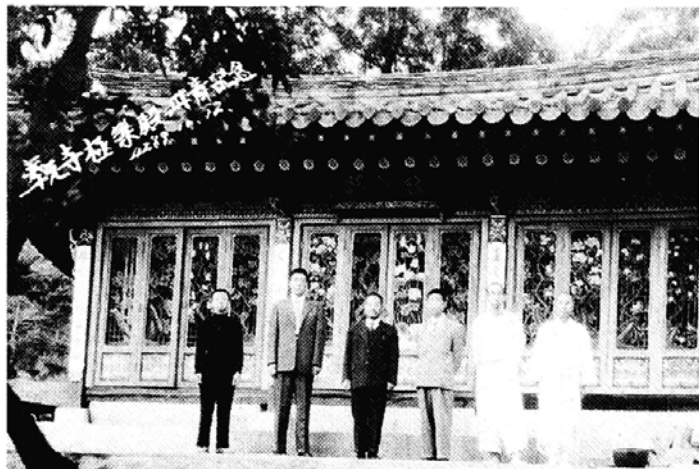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믿음 다지고 다지세요



◇ 동원사 극락전 단청을 완성하고 1956년 10월에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민봉스님

물 선(禪)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붓질이 내에게는 선수행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폭에 무엇을 그릴 것이란 계획 이외의 어떤 계산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고, 때론 지옥에서 자기 어머니를 구해낸 목련존자를 친견하기도 하지요. 자연서도 깨어서도 부처님 상호만을 생각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끝없는 정진 끝에 불화라는 화두가 이제서야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는 붓을 들어 부처님의 눈을 그려넣는 화중점정의 순간. 한껏 위엄을 갖추었으면서도 자비로운 부처님이 환한 눈웃음을 지으며 화폭 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나의 몫이

“자나깨나 부처님 상호만 생각  
線 하나하나 禪으로 여긴 붓질  
金魚의 구도정신이자 법문”

것들입니다. 거기에 어찌 현대적이란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스승들이 해온 그대로 이어가며 장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지요. 또 그렇게 고이 물려줘야 하구요. 공부와 하려고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원만한 이뤄놓고 나가야 한다고 이르지요. 하지만 진득하니 공부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한참하다보면 내가 능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능력 발휘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밑에서 2~3년 공부하다가 나가서는 죄다 제자람시고 간관걸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최소 10년은 공부해야 기본이 생기는 겁니다. 시방 좀더 천왕초를 수천장씩 그리는 이유는 단순한 연습만이 아닙니다. 근대 요즘 사람들은 그림 못그림아 하더군요. 밑그림은 전대 스승들이 그려놓은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근본원리로 밑그림들을

성스러운 대상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이지요. 옛 불화나 단청을 보면 세월 때문에 빛은 바랬어도 며칠 전에 그린 듯 생생한 기(氣)가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지극한 신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기교만 중시하고 있는 듯해요. 혼이 배이지 않으면 아무리 잘 그렸어도 죽은 그림일 뿐입니다. 불화를 그리기 전에는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봉원사의 단청 탕화는 모두 내손으로 그려 모셨습니다. 비구니사찰인 보문동 보문사도 20여년 걸려서 완성했지요. 조계사 단청, 표훈사, 유점사, 마곡사, 도선사, 봉은사, 백련사, 천축사 등 이전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제 손이 닿은 사찰이 전국의 많지요. 제가 평생 그린 불화가 몇 점인지도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만점은 될 겁니다. 절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경북경주 경회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도 했지요.

불사를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금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어로서 어떤 불사에 동참하여 맡은 바 일을 하는 것도 공덕이고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발심할 것이니 남의 환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내같이 불화나 단청을 하는 사람과 미술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나보고 그냥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환송하게도 ‘금어’라 불러주고 ‘단청장’ ‘불화가’라 불러 주는데 그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미술가 화가와와는 아주 다릅니다. 예술을 하려고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지극한 신앙심을 발휘해 그 의미를 새겨넣고 보는 사람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금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심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다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란 수행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불자는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니까요. 곳곳에서 보여주는 불자들의 지극한 신심과 노력이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박 회 진

(시인)

보살이란 무엇인가?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념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보살이다. 상구보리란 더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발적 수행으로 이것이 성취되면 불멸 터지듯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중생제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지와 대비, 깨달음과 실천, 자유와 사랑은 결국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고, 대공정과 찬미의 시를 쓸 수도 있게 된다. 나는 이제 내년이면 칠순이 되는 나이. 잘 해보야 여생은 5년, 10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읽어야 할 책, 써야 할 시편, 가뉘어갈 곳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다. 한눈을 팔 겨를이 없다. 일체의 일간신문을 끊은 지도 십년이 넘었다. 현대인의 필수라는 차도 없거니와 컴퓨터도 없다. 작중법을 모른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움직여야 산다. 인간의 몸은 움직일 줄 모를 때 종말이 온다. 늑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심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는 하루 오전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기상하는데 30분쯤 도수체조를

반야심경 외우며 '시보살' 발원  
잠들때엔 방하착 일어나선 초발심

직업이 되어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므로 자리에 틀림없다. 동시에 그것은 많은 이웃들을 이롭게 할 터이니 이타행인 것이다. 누구나 사심없이 정성을 다하여 직업에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오전 중 독서(詩)에 골몰하면서 독자를 조금씩 두 사 발쯤 마신다. 더러 지치면 서창(西窓)가

독히 펼쳐져 있는 북한산에 눈을 준다. 아무리 보아도 흥이 안나는 산! 아니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산은 나의 위대한 도반이자 수호신인 것이다. '北山은 한번도 大華嚴三昧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나의 일행시) 잠심을 먹기 전 또한반 도수체조를 한다. 주로 목운동과 허리운동인 것이다.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북한산 숲속으로 산책을 나간다. 날씨가 상쾌하면 잔디밭을 걷고 대동문까지 가기도 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고상산천후계곡으로 빠진다. 숲속에서 정좌하여 명상에 잠기면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으레 (반야심경)이나 (법성론)을 외운다.

끝으로 '나의 근황'이라는 사행시 일수를 여기에 소개한다. '잠들 때엔 放下를 일어나선 初發心/ 오전엔 책 읽거나 時 한수 쓰고/ 오후엔 숲으로 산책 나가지요/ 이것이 나 好日主人의 근황입니다.

무슨 일이든 계산 앞세우면 헛일돼요  
지극한 신심이 부처님 세상 만듭니다

저 나한테 주어진 그림을 잘 그리려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더욱 신비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게 보이도록 그려낼 것인가를 자나깨나 궁리하고 매진하는 것이 내 법문입니다. 불화를 조성하는 일은 백척간두에 선 수행자와 같은 구도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층중일 부처님 그려서도 채색해야 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구도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화에 첫 입문한 사람은 수행자의 초발심같은 끝없는 인내와 수행이 필요하지요.

아니에요. 다음의 몫은 그 부처님을 향해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린 불화를 중에 애착가는 작품이 튀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부처님 마음을 따라 부처님 마음으로 조성해온 불화는 모두 한결같아 보입니다. 작품들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은 모든 사물에 사비와 우열을 가리려는 인간의 헛된 사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저 부처님 하면서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듯이 전지 사찰에 봉안한 수많은 불화가 제각각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분별심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적 불화라고 자기마음대로 그리는데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쓸데없는 것이예요. 불화는 모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 중에는 1백년이 더 된 것들도 있습니다. 밑그림은 원래 전대 스승에게 물려받아 교재로 열심히 익히고 고이 간직하다가 제자에게 물려줄 때는 똑같이 넘겨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려받을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밑그림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대로 물려야 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파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몰라도 간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물려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물려받겠다고 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지켜갈지도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그렇지만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밑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입니다. 수십 수백년동안 사랑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경배하는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집을 지십시오.

-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물이 무겁고 속만을 취하지 못할 때(홍몽을 자주 본다).
-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호파가 없을 때.
-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 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적인 학생에게.
- 6. 오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 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드립니다.
-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강수맥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왕릉목에서 10년이상 지낸 무궁에 오가피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도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금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열,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장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목용사료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목욕분양
- 전화문의시 정국 택배 배대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 8588, 682-4965 (농장)
- FAX: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go.com/baeghj/

철야옹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대 숨차지 않고 힘때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 ◆염불 공경경 독경하는 법: 수행시 염으로 숨을 들이쉬면 물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끈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심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운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 전에 한뼘한뼘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장제항상자세, 좌선자세, 행선, 외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 일요일 오전 10시)

- 한글금강경 불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제조건강법, 108배2회, 외선호흡법, 수행상담 점진, 속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형, 특별소원취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옹맹정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철야정진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정진,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통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교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처를 앞에서도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내내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법왕정사 수행일  
불맞고수 소승강  
금강지혜보궁, 두리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인인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철야 수련회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명연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복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운림 佛字체」 최초로 공개

Advertisement for '반야심경' (Heart Sutra) featuring a calligraphic image of the sutra and text describing its unique '佛字체' (Buddha Character) style. It claims to be a '眞本' (True Original) and offers a 100% effective method for learning it. Contact information for '운림 佛字체' is provided.

생명의 전화: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